

相克性 原理

-괴롭힘의 對한-

裴相河

나는 偉大한 것을 發見했다. 이것의 發見하든 瞬間 나의 心靈은 限量없는
집념으로 밋치기까지의 恍惚에서 얼른 깨어나지를 못하였었다. -나는 나 自
身에게 이와갓치 告白한다.

客觀的으로 듯기엔 너머나 어리석은 誇張갓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自己自
身에게 가장 忠實한 것은 自我맞게업다. 自我에 對한 告白만이 가장 眞實한
告白이다. 그럼으로 나는 나 自身에게 對한 僞善업는 洗灑되지 못한 告白으
로써 다만 이것만으로써 (設令 이것이 誇張으로들리든지 밋치쟁이 소리로 들
리든지)同志들에게 告白하려한다.

나의 告白은 다시금 繼續하니…………

그것은 나의 福音이다. 나는 이 福音을 안고 거리거리를 쏘대면서 왜치고
도 심헛었다. 나의 靈은 나의 發見한 바 이 眞理를 아름답게 가다듬어 感激
의 눈물로 繡노하 憐憫의 보에다 싸서 그것을 求하려다 求하지 못하고 죽은
過去의 모-든哲學家들 무덤 압헤 巡禮한다.

이는 自負도 갓다. 그러나 自負가 안이다. 妄想도 갓다. 그러나 妄想도 안이
다. 나의 發見한바 眞理는 알고 보면 너머나 平凡한 普遍的일 眞理이기 새문
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는바 限에 잇서서 나의 發見으로써 나의 發身이라
하여둔다. 나의 밋는 바 限에 잇서서 나의 眞理를 나의 眞理라고 自信한다.

모-는 模倣을 超越한다. 그럼으로 이는 나의 福音이다. 나는 나의 福音을
안고 만치안흔 나의 親舊들께 눈호려 한다. 그러나 이 福音을 밋을만한 親舊
이면은 -即 이글을 읽을 수 잇는 벗이면은 만다시 그는 自己의 괴롭힘을 徹底
히 깨다른者 自己의 괴롭힘을 徹底히 問題삼는 者라야만 한다. 自己의 괴롭힘을
徹底히 깨닫지 못한 者 自己의 괴롭힘을 徹底히 問題삼어 보지 못한 者에 잇
서서는 이 글을 所用업는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은 于先 괴롭 自體가 무엇인
지를 알지 못하는 以上 괴롭힘의 治療法인 本論을 認得할理 업는 싸답이다. 그

림으로 이러한 사람이면 當初부터 이 글을 읽지 말도록 勸告하고 싶다. 그래도 不幸히 첫 페-지의 몇 줄을 읽기 始作하였거든 그 以上 더 繼續해서 읽음으로써 그네들의 平凡한 時間을 더욱 平凡하게 하지 말기를 다시금 勸告하여준다.

自己의 괴롭을 徹底히 깨닫지 못한 者, 自己의 괴롭을 徹底히 問題 삼지 못하는 者들이 너무나 만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네들은 장님이요. 이 글은 丹青이다. 장님이 丹青求景을 갖다가는 길 일코 일 일하는 수작 맞겐 할 것이 업슬 것이니 平凡한 생각을 안고 平凡한 죽음맞게 目的삼을 것이 업는 그네들이면 이글을 읽기 보담 차라리 그네들만이 살 수 잇는 享樂을 사서 그네들만이 탈수 잇는 高級自働車에 태워 그네들만이 자랑할 수 잇는 아릿다운 外裝을 자랑하면서 그네들만이 彷徨할 수 잇는 『平凡』이란 王國을 彷徨하라. 享樂과 高級自働車와 아릿다운 外裝이 쫓나는 瞬間 나는 相關치 안홀 터이니 그네들은 그네들만이 닳고 말 『平凡한 삶』을 닳고 말 것이다.

太陽은 東에서 西로 진다. 이것은 變할 수 업는 法則이며 그르기싸 왜 우리는 그것을 平凡하게 보고 만다. 宇宙의 모-든 現象은 大部分이 이와 갖치 너머나 規則的이다. 그르기싸 왜 우리는 그 모-든 現象을 平凡하게 보고 만다.

『太陽은 왜? 東에서 西로만 지나? 西에서 東으로 질 수는 업는 것인가? 大體 東과 西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概念에 지나지 안홀 다름이지 客觀的實在은 안임이나 안일까? 東이 西가 되고 西가 東이될 수도 또한 잇지 안치나 안나?』……………이와 갖치 平凡한 가운데서 平凡한 것을 超越하고 그것을 徹底히 疑心하며 問題삼은 사람이라고는 만흔 가운데의 몇 사람에 지나지 안홀 것이나. 괴롭 업시 사릿다는 사람이 업다. 그리고 쯤 괴롭업시 사는 사람이 업다. 구러나 괴롭 其 自體가 무엇인가를 徹底히 깨달어 보았다는 사람은 몇몇 數조에 지나지 안홀 것이다. 이 몇몇 사람에 限해서 나는 本論을 읽을 權限을 주려한다.

애쑤 눈도 한 개의 現象을 한 개의 現象으로만 본다.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개의 現象을 두 개로 보지 안코 亦是 한 개의 現象으로만 보는 法이다. 한 눈을 가진 사람이 한 개로 볼 것 갓흐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두 개로 보는 것이 適當한 理論이라고 主張하고 잇는 皮相的 理論家들을 爲해서도 本論은 읽어질 義務를 拒絕하고자 한다. 그네들에 잇서서 本論은 數億萬個의 輝煌한 것으로 보히기 쉬운 싸닭이다. 本論은 數億萬의 가슴 속에서 쫓아온 精氣이기 썰문이다.

×

어느 때이든가 나의 가슴은 限量업는 괴롭으로 가득 찼었다. 한個 한個의 原因은 알 수 업스되 그 모-든 個個의 原因이 混成되고, 綜合된 것 갓흔 그리고 原因을깨닫지 못하겟는 괴롭, 말하자면 괴롭만으로의 괴롭이 맞치 식염은 무쇄 처름 내 가슴 저-밋헤 쫓업시 웅스리고 안젓는것 갓했었다.

『삶은 괴롭을 안고 나니 괴롭 업는 삶이란 업슴이 道理이다』-그래서 나는 이와 갓치 歎息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諦觀만으로써는 나의 어셔케도 할 수 업는 괴롭을 조금이라도 어셔케할 수는 업섯었다. 어느새 어느곳에서든지 『괴롭 업시 살엇스면』-하는 憧憬이 쓴어지지 안흐니 만큼 나의 가슴 다른 便서는 設습채움(滿足)엇지 못 할지언정 괴롭 업시 살구 십구나-하는 긋세인 希望이 머리를 들고 잇섯든 짜답이엇었다. 하다못해 나는 希臘넛 날의 頽退的 歐謠를 되푸리도 했었다.

괴롭은 『삶』, 곱셈은 『죽음』-그네들의 노래는 이와 갓치 誘惑的이다. 그러나 나는 頽退 속에서도 安定을 엇지 못했었다. 나의 限量업는 「삶」의 「힘」은 「죽음의 곱셈」을 肯定하기 보담 「삶의 괴롭」을 否定하고 십혔든 짜답이다. 「힘」은 超克을 同伴하기 짜문이다. 그래서 나는 求하고 애썼다. 「삶의 괴롭」을 업새이려면 大體 어셔케하면 조홀 것인가? 나는 求하고 애쓰고 생각했었다.

求하라 엇으리라.- 이는 普遍的 眞理야 안일른지 모르겟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잇서서는 그것은 眞理로써의 實際的 發顯을 보여주었다. 왜그르냐 하면 나는 求하고 애쓰고 생각한 結果 적어도 나의 아는바 限에 잇서서 적어도 나의 밋는바 限에 잇서서 「괴롭의 治療法」을 엇은 짜답이다. 나의 사랑하는 本論을 題名해서 나는 「相克性 原理」라 한다. 相克性이야말로 괴롭의 唯一한 治療法인 짜답이다. 여기 對한 細細한 論述은 細細한 論述에 들어가서 論述할 것이어니와 그 면침 우리로써 미리 알아 두지 안니치 못할 바는 相克性에 니르기까지의 나의 思索的 過程이다. 이 過程 업시는 相克性은 엇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이 過程을 지나지 안코는 이 글을 넘는 사람으로써 相克性을 理解하기에 큰 困難을 甞길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命名하려는 過程은 便宜的 命名에 지나지 안는다. 더 나흔 일흠이 잇스면 맞구어도 無妨하다.

思索的 過程

1. 괴롭의 普遍性
2. 괴롭의 永遠性
3. 괴롭의 階級性
4. 괴롭의 不治性

5. 괴롭힘의 相克性

1. 2는 괴롭힘의 意義를 概觀적으로 紹介한 것 뿐이다. 思索의 出發點은 되드래도 그다지 重要치 안은 部門이다.

3. 괴롭힘의 階級性은 괴롭힘의 種類를 質적으로 區別한 것인데 이도 亦是 結論인 相克性을 끌은 重要的 部分은 안이나마 平凡한 常識을 簡單하게 哲學적으로 統一했다 는意味에 있어서 相當한 價値를 가질 수 있다.

4.의 괴롭힘의 不治性은 괴롭힘의 相克性을 導出した 가장 重要的 思索過程이다. 不治性과 相克性은 密接한 因果關係를 맺고 잇는 것이니 不治性이라 最后的 絶望이 相克性이라는 通路를 만드렀다고 할 수 있다. 例를 들자면 「勝利를 얻게 만든 背水陣」에 있어서 勝利는 相克性에 合當하고 背水陣은 不治性에 合當하다. 곳센 힘만 있고 불것 갖으면 背水陣은 勝利를 얻을 수 잇는 最善의 陣法이라 할 수 있다. 힘업는 者이면 絶望에서 쓰러질 것이요. 힘잇는 者이면 絶望的 勇氣-그 以上 더 낼 수 업는 最后的 勇氣-를 내여볼 수 잇는 것이다.

1. 괴롭힘의 普遍性

여기서 뜻하는 바 「괴롭힘」은 客觀적으로 實在치 안는 「괴롭힘」이다. 抽象的인 概念인 까닭이다.

이 괴롭힘 도안이고 저 괴롭힘도 안이고 而르면서 根原的 本質에 있어서는 이 괴롭힘에게도 저 괴롭힘에게도 妥當할 수 잇는 概念的인 괴롭힘 即 괴롭힘의 種種相을 超越한 가장 넓은 意味의 괴롭힘이다. 原因에 있어서는 心的動機 以外에 여러 가지 物的動機도 잇겠지만은 여기서 結果된바의 괴롭힘이란 事實自體만을 두고 불 것 갖으면 이는 純然히 한 개의 心的現象에 지나지 안는다. 어찌한 괴롭힘인지는 姑舍하고 누구이든지 어찌한 괴롭힘을 갖고 잇다 함은 事實이다. 그러나 本論은 事實을 事實 그대로 맞치 心理學이 하는바와 갖은 As Suck 의 觀察을 하지 안코 換言하면 本論은 Sein 研究가 안이요. 事實을 超克함으로써 쏘는 事實을 超克하기 爲하여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든지 普遍的이라 할 수 잇는 「괴롭힘」을 除去키 爲하여 이와 갖치 하지 안으면 안이 된다는 Sollen 에 對한 研究이다.

消柱的이 안이요 積極的이다.

絶望的 詩文이 안이요 計劃的 反逆이다.

「괴롭힘」에 戴한 反逆. 나 自身에 對한 反逆!

나 自身을 몹시도 미워하든 나는 이로써 나 自身을 超克한다.

×

예수는 十字架를 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罪惡을 속하섯다. 그러나 에던서

타고 난 우리들의 괴롭힘은 만히 十字架 밧헤버리고 갔다. 사람은 괴롭힘에서 나고 괴롭힘에서 살고 괴롭힘에서 죽는다.

누구든지 괴롭힘은 가졌다.

괴롭힘은 普遍性을 要求한다.

괴롭힘을 體得하기까지 나의 思索은 이곳서 비롯한다

삶을 가진 存在이면은 누구든지 삶을 가졌기짜 왜 괴롭힘도 쏘한 갖고있다.

괴롭힘은 삶의 本質的屬性인 까닭이다. 그러나 여기 對한 證明은 重複을 避하기 爲하여 4. 「괴롭힘의 不治性」에 미루어둔다. 괴롭힘 업는 사람이 잇다면은.....이러한 前提에서 生겨나는 結論은 空想에 지나지 안는다. 왜그르냐 하면 前提自體가空想이 괴재문이다. 괴롭힘은 普遍的이다.-이는 괴롭힘의 空間的意義. 東에서 사는 사람이나 西에서 사는 사람이나 文明人이나 野蠻人이나 누구이든지 太陽을 보고 사는 사람이면은 太陽을 보고사는짜 왜 다 갖치「괴롭힘」을 갖고 잇다는 말이다. 經의 觀察

2. 괴롭힘의 永遠性

永遠性은 괴롭힘의 時間的意義다. 「어느 쎄이든지」괴롭힘은 存在하는 까닭이다. 여기 對한 證明도 4, 「괴롭힘의 不治性」까지 미루어둔다. 그리고「어느 쎄이든지」는 自然 두 가지로 난후어질 수 었다.

A, 社會的

B, 個人的

語弊가 잇슬는지 몰으되 A, B, 의 區別은 괴롭힘自體의 區別이 안이요. 괴롭힘에 關한「쎄」의 區別이다. 「社會的」이라함은「쎄」를 人類社會的 即 歷史的으로 본 것이니 그 以上 더 廣汎할 수 업는 範圍를 말함으로되「個人的」이라함은「쎄」를 個個人的의 한 生涯에만 限한 觀察이다. 다시 말하자면

A, 人類全體의 歷史라는 긴「쎄」를 두고 보드래도 어느쎄이든지 어쎄한 괴롭힘인지가 存在하고 잇섯다.

B, 個個人的의 一平生이라는 制限된「쎄」를 두고 보드래도 어느쎄이든지 어쎄한 괴롭힘인지가 그 個個人에게 存在하고 잇섯다.

라고도 할 수 잇다. 人類歷史에 잇서서나 個人的의 生涯史에 잇서서나 괴롭힘의 存在는 크게 보면 永遠的이라고 할 수 잇는 것이다.

나의 「삶」이나 그네들의 「삶」이나 共通한 根原을 갖고있다. 다 갖치 「괴롭힘의 連續」이란 곳에서 握手한다. 괴롭힘을 超克한 사람 괴롭힘에서 飛躍한 사람이 잇다 한들 그는 한 괴롭힘을 超克하엿슬다름이며, 이 괴롭힘에서 저 괴롭힘으로 飛躍했슬 다름이다. 괴롭힘의 軍卒은 無數하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췌이 노히는 곳곳마다 괴롭힘의 歡迎門은 準備되어 잇는 것이다.

自己의 할 바를 다하고 自己가 바라든 바의 全部를 自己의 손으로써 能히 이루었다는 超人的인 「사람」이 있다고 假想하자. 그는 그의 無限한 힘을 스스로로 讚歎할 것이며 그의 힘으로써 만드려 노흔 「삶」「現世」를 無限히 讚美할 것이다. 그에게 잇서서 現世는 곳 樂園일 것이요. 그의 生活은 歷史上의 어느 누구 보담도 幸福스러움다고 할 것이다. 이러케 볼 것 갓흐면 그의 가슴은 언제인든지 「김뵈」으로 가득 찻을 것이니 「괴롬」의 그림자까지도 存在하지 안헛슬 것이다.-이와 갓흔 「사람」을 想像만하자. 그러나 그도 「사람」이다. 現世를 「樂園」이라고 하엿다. 樂園이면 限量업는 愛着이 생길 것이니 Men is Mortal 이란 宿命은 그의 가슴에 무엇을 즐것인가? 不老草를 求하려든 秦始皇의 心事는 생각사록 애처러웁지 안는가? 지는 달은못 지게할 수 엿드래도 自己의 죽음만은 막을 길이 업다. 어더한 사람에겐 김뵈이든 죽음은 世上이 아름답게만 보히든 그에게 잇서서는 가장 慘酷한 最後의 괴롬을 선사하고 말엿다.

完全히 平和스러운 時代는 업다. 時代의 괴롬이 潛在하엿슴에 지나지 안는다. 潛在가 現在로 變할 쎄 그것은 革命이라고 불러짐으로 平和스럽게 보히는 時代는 革命의 胎兒期일 다름이다. 그럼으로 모-든 歷史는 괴롬의 連續이다. 쏘는 괴롬의 潛在現在的 連續이라고 보는 수 맞게 업다.

괴롬 업시 사는 쎄가 잇다면 괴롬 업는 時代가 잇다면 -이와 갓흔 前提는 虛無스런 空想的結論 맞게 쓰을 것이 업다. 前提自體가 虛無스런 空想인 까닭이다. 그리고 無에서 有가 생긴다 함은 想像의 哲學에 지나지 안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人類社會의 歷史的으로 보나 個人의 生涯 上으로 보나 괴롬의 存在는 永遠的이라 할 수 잇다. 이것은 平凡한 眞理이다. 그러기 眞理에 眞理이다.

緯의 觀察

3. 괴롬의 階級性

여기서 뜻하는 바의 괴롬은(먼침 말한 바와 갓치)모-든 괴롬의 種種相을 超越한 抽象的 概念이다. 괴롬의 內容에 對한 最高形式이다. 그럼으로 「괴롬」은 괴롬의 모-든 內容을 包含한 것이며 사라서 모-든 內容에게 妥當할 수 잇는 것이니 質的으로 보아서 괴롬의 種類는 數업시 만타고 할 수 잇슬 것이다. 量的으로 보드래도 千差萬別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統括的으로 보아 階級の 두 種類로 난후려한다.

(一)은 無產者의 괴롬이요. (二)는 有產者의 괴롬이다. 前者는 切迫한 괴롬이요. 後者는 餘裕 잇는 괴롬이다. 前者는 根本的(一次的)인 괴롬이요. 後者

는 末梢的(二次的)인 괴롭이다. 前者는 勞役夫의 괴롭이요. 後者는 貴族的인 괴롭이다. 後者는 神仙의 괴롭이요. 前者는 動物的인 괴롭이다. 動物的인 괴롭이기때 왜 괴롭다운 괴롭이요. 神仙의 괴롭이기때 쓸데 업는 괴롭이다.

無產者의 괴롭은 먹기 爲한 괴롭 根原的으로는 살기爲한 괴롭이로되 有產者의 괴롭은 詩的인 괴롭, 夢幻의 괴롭, 그림자의 괴롭에 지나지 안는다.

쌈홀으는 勞働夫의 이마에서 갑싼 月給쟁이의 洋服에서 나는 無產者의 괴롭을 본다. 釋王寺의 失戀者에게서 落選된 府協議員에게서 나는 有產者의 괴롭을 들었다. 『칸디-』의 反抗은 動物的인 革命□切迫한 根原的인 無產者의 괴롭이 발부등친 것 씬꾸어서 니루지 못한 『나폴레온』의 世界征服의 괴롭은 餘裕잇는 末梢的인 有產者의 괴롭의 遊興.

前者는 참된 不可不의 鬪爭이요. 後者는 쓸데 업는 奢侈의 鬪爭이다. 괴롭은 이와 갖치 두 가지의 階級的 種類로 난후어진다 階級的 屬性은 支配性이다. 그럼으로 괴롭의 階級도 또한 支配性이란 範疇를 벗어나지못한다. 權力은 無權力을 支配한다. 有產은 無產을 支配한다 그러나 이곳에 가장 興味잇는 現象이 잇으니 괴롭 階級에 잇서서는 支配關係가 顛倒한다는 것이다. 有產이 無產을 支配하는것이 안이요. 無產이 有產을 支配한다. 即 無產者의 괴롭이 有產者의 괴롭을 支配한다는 말이다. 왜그르냐하면 無產者의 괴롭은 根原的인 切迫한 本能的의 괴롭인 까닭이다. 긴말을 避해서 例를 든다. 어선 偉大한 人物이 (君王이든 政治家이든 富豪이든 文豪이든 等等이든)어셔한 機會에(사람의 運命이란 推測하기 어려운 것이니깐) 廣漠한 沙漠서나 쏘는 無人深谷에서 나호올로 길 잃코 헤매인다고 想像하자. 그는 只今까지 그로씨의 偉大한 괴롭을 갖고 잇섯다. 隣邦을 征服하려든 괴롭(君王이면)敵黨을 消滅하려든 괴롭(政治家이면)어엽본 袴을 엇으려다 못엇은 괴롭 (富豪이면) 劃時期的 大作을 完成치 못한 괴롭(文豪이면) 등이 그네들의 最大의 괴롭이 엇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有產者의 괴롭들이다. 有產者의 괴롭을 안은 그들이 只今몇칠동안을 沙漠서 深山서 먹지못하고 마시지 못했다고 假想한다. 이 瞬間 그들의 가슴에서는 過去의 모-든 偉大 든 有產者의 괴롭이 사러지고 말 엇슬 것이다. 「먹고 쉽다」는 唯一한 根原的인 切迫한 괴롭만이 그네들의 가슴을 完全히 占領하고 支配하기 쎌문이다. 먹고 쉽다는 괴롭은 無產者의 괴롭이다. 그럼으로 모-든 有產者의 괴롭은 絶對的인 本能的인 無產者의 괴롭 압선 사러지고 만다. 그럼으로 無產者의 괴롭은 有產者의 괴롭을 支配한다고 할 수 잇는 바이다. 注意할 것은 괴롭의 有產的 無產 對立이 價値差別을 쏘하지 안는다는 말이다. 有產者의 괴롭이 惡이라 함도 안이요. 無產者의 괴롭이 善이다 함도 안이다. 一은 一次的이요. 他는 二次的이로되 二次的은 善二

次的은 惡이란論理는 成立되지 않는 까닭이다. 엇으러든 사랑을 엇지 못하고
넷날의 괴롭을 괴로워하는 靑年이 잇다한들 나는 過히 그의「有産者의 괴롭」
을 責하지 안흐련다. 그것은 自然이요, 그것은 젊은이요. 그것은 사람이야만
맛볼 수 잇는 괴롭이기 새문이다. 몇칠 동안을 굶주린 한 家族이 잇다한들
나는 그들을 無産者의 괴롭을 괴로워하기자 왜讚美하자고는 하지 안켓다. 無
産者의 괴롭은 업서짐이 讚美할 만 한 일이기새문이다.

一은 根原的이요. 他는 末稍的이다.

一은 切迫한 것이요. 他는 餘裕 잇는 것이다.

그러나 善惡의 價値를 超越한다. (繼續)